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2차 공모 농진청 '농업종합병원' 무주 찾는다

공동체 활성화·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등... 선정시 5천만원까지 지원

완주군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2016 2차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한다.

2015년부터 시작해 4회째 시행하는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10명 이상), 관리주체 간 협의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신청분야는 주민 공동체(1단지 주민들로 구성), 연합 공동체(2단지 이상 주민 결합), 공동체 시설(활동 공간), 공용시설물 관리, 온라인투표 서비스 사업 등 총 5가지 분야이다.

특히, 이번엔 공동체 활동 지정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은 재활용품 단가하락으로 인한 업체의 수거거부해 대한 문제를 입주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단지 이내



완주군은 2016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단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올해 1차로 선정된 단지는 공동체 활동 분야에 한해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요소는 바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이다"고 말했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지난 3월 1차로 41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제2차 사업은 오는 5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30일 무주읍 서면마을 진료

무주군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촌마을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비롯한 우석대 의료원과 전북농업기술원이 함께 한다.

서면마을에서 일손 돕기를 비롯해 생활시설과 농기계, 가전제품 점검 수리, 건강검진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농업기술·생활법률상담, 이·미용봉사(커트, 염색), 영정사진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업전문가와

의료서비스팀이 함께 펼치는 재능기부봉사활동이 서면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원인 지역사회에 나눔과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 운영될 서면마을은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인구가 많아 대상자가 됐으며 3백여 명 주민들은 대부분 벼와 감자,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서면마을 주민들은 "반가운 손님들이 마을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영농철이 시작돼 읍내 한 번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참에 건강도 챙기고 영농지도도 받고, 농기계도 손을 좀 봐야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개최

무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과 27일에 무주읍과 안성면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입주예정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대상에 대한 내용과 해결방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현재 3곳의 농공단지에서 식품과 철강 등을 주종으로 하는 15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기업지원 상담창구를 운영 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생산 제품 판매 지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 김영식 투자유치 담당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입념으로 앞으로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무주 기업 육성을 운영하기에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진안군, 심폐소생술교육

진안군은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나의 안전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형재난 발생상황을 대비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군은 13개 협업부서와 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재난관련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효율적인 훈련 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유형별 상황설정 통합시나리오 작성,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상황판단회의 방법, 훈련참가자의 임무와 역할, 토론훈련 진행방법, 훈련평가기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올해 풍수



진안군은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해로 인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교통사고, 화재 분야와 심폐소

생술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캠페인'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군민의 참여를 제고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상수도요금 체납자 급수정지 추진

다음 달 4일부터

장수군 상수도요금 상승·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쳐 오는 5월 4일 정수처분(급수정지)을 실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4월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8,561건 4천6백43만7천원에 달하고 있어 상수도요금 2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 체납

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수처분(급수정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 전화 및 방문 납부촉려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전개해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는 주민

들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어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단수 조치를 유예하였으나 성실 납부하는 가구와 형평성 유지와 고의·고질적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수도요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상수도팀(063/350-2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문화체육분야 등 7개 분야

완주군은 지난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심사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완주군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분야 유순애씨(예교예술창작소)를 비롯해 나눔봉사분야 김인조(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경제분야 안대성(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애향분야 박영철(해방대 전우회 전주완주지회), 효열분야 이상임(비병면), 교육분야 문영배(한국과학

우청소년단 전북지회), 농림축수산분야 조영호(완주한우협동조합)씨가 선정됐다.

제52회 완주군민대상은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까지 완주군민의 장으로 수상하다가 올해부터 완주군은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상대상 및 자격을 민선6기 군정방향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완주군민대상을 완주군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분야도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확대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부귀면민의장 박명규·허경석·박시진



박명규 허경석 박시진

부귀면 향우회 발전에 공헌했다. 공익장 수상자로 선정된 허경석(남·66세, 거석리 사인암)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부귀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4년부터 소재지권 정비사업 위원장을 맡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산업장 수상자로 선정된 박시진(남·48세, 황곡리 봉황골)씨는 2014년부터 부귀면 수박작목반장을 맡아 전북 최초 2줄기 수박방임재배를 전면 확대하는 등 신소득 작물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